



정보통신연구진흥원

www.iita.re.kr



IITA 신청사 이전 기념행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원장 김태현, <http://www.iita.re.kr>)은 3월 31일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에 독립청사를 확보하여 새로운 업무의 장을 연다는 의미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가졌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은 그동안 KAIST 내에 있는 ETRI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여 왔으나 IT839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PM 및 관련분야 전문가 확충, ETRI 및 KIPA로부터 기술정책연구, IT정보분석·서비스 및 인력양성업무 이관 등으로 조직이 확대되어 청사이전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이번 ICU 화암동 캠퍼스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그동안 부족하였던 사무공간, 회의실, 평가장 등의 공간 확보가 가능해 졌다. 그동안 사업관리, 평가 등 관련 업무로 진흥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공간부족으로 겪어야 했던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사무소에 있는 인력양성사업단이 대전 본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사업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며, 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미래 업무 수요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IITA 고객만족도 '상위등급'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3개 연구개발(R&D) 부처 산하 연구관리전문기관 중 한국과학재단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고객만족도가 높게 평가됐다. 기획예산처가 밝힌 2004년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75개 기관 중 과학재단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상위 15개 기관에 포함됐다. 산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원은 중상위 등급을 받았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원장 김태현)은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민원안내 및 신청·열람 기능을 제공하고, 고객 현장 개정을 추진해 고객요구 정보에 대한 공개를 확대했다. 또한 고객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서비스 이행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 조사는 기획예산처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의뢰해 개발한 평가모델로 실시한 것이다.

■문의: 대전=조규환 기자 @디지털타임스, khcho@dt.co.kr

www.iita.re.kr

IT부품사업 기획연구 추진

IT부품산업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IT산업 성장의 핵심 경쟁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IT부품산업의 기획연구를 추진 중이다. 내용은 크게 두가지이며, 수출입 상위 부품/소재 경쟁력 분석 및 IT개발부품 발굴과 IT839 성장동력별 시스템/모듈/부품 체계화 및 핵심부품 발굴이다. 본 기획연구 결과는 '05년 5월에 나올 예정이다.

■문의: 이상호 연구원, 042-710-1183

제1회 차세대반도체 포럼

성장동력내 반도체사업간 기술교류를 통한 win-win 협력추진을 위한 반도체포럼이 '05년 3월 15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 되었다. 주요 사업추진 전략 및 차세대반도체 R&D과제의 이해 및 공감대 구축을 위한 자리 가 되었다. 주요 참석자로는 차세대반도체분야 14개 과제책임자, 실무위원 회위원, 차세대반도체사업단장, IT SoC PM 외 성장동력사업관련자 등이며 총 40여명이 참가하였다.

■문의: 안두수 과장(반도체연구조합), 02-570-5260

IT중심 나노/바이오 융합기술 기획

IT기술의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한 나노/바이오 융합기술 기획이 진행되고 있다. IT를 중심으로 나노 및 바이오 기술을 접목하여, IT서비스 및 정보 가공을 가능케 하는 IT 3차 산업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본 융합기술의 중심에는 IT SoC 가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Invisible silicon이 나노/바이오와 결합되어 intelligent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10~15년에 차세대PC 및 지능형서비스로봇이 크게 발전할 분야로 전망되며, 본 기획결과는 향후 융합기술과제 발굴시 Reference로 쓰이게 될 것이다. ■문의: 장선호 기술역, 042-710-1181

2005년도 기술수요조사 추진

2006년도 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신규과제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가 '05년 5월부터 진행 예정이다. 연구수 및 산업체 일선의 기술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올해부터는 PECoM 시스템에서 직접 인터넷 접수를 할 예정이다.

■문의: 이민경 연구원, 042-710-1043 ☎

IT-SoC협회

www.itsoc.or.kr

IT-SoC협회 제2차 정기총회 개최

IT-SoC협회는 지난 3월 4일 서울 가락동 IT벤처타워 서관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송문섭 협회장(팬택&큐리텔 대표이사)을 비롯 주요 회원사 대표들이 모인 이번 정기 총회에서는 2004년도 사업결과 보고와 감사보고 그리고 2005년도 사업계획 보고 등의 안건이 다루어졌다. IT-SoC협회 황중범 사무총장의 2004년도 사업결과 보고에 이어 이현 감사(텔레이스 대표이사)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현 감사는 회계감사 결과 2004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이 확인 되었지만, 협회의 전체예산에서 정부출연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협회사무국에서 일반회계 수입을 늘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

력을 기울이는 한편 협회 회원사들도 회비납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감사의견을 내 놓았다. 2005년도 협회 사업계획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승인 되었다. 식후 행사로 2004 IT SoC 대상 시상식(대상 코아로직)과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장선호 기술역의 2005년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IT SoC Magazine

온라인으로 구독신청 가능

IT SoC Magazine의 구독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IT SoC Magazine의 기획, 편집, 발행을 주관하고 있는 IT-SoC협회는 IT SoC Magazine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독자의 구독신청 편의를 위해 협회 홈페이지(<http://www.itsoc.or.kr>)에 온라인으로 구독신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IT SoC Magazine의 구독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 이름, 소속, e-mail 등 몇가지 사항만 등록을 하면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무료로 IT SoC Magazine을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구독 신청 문의: IT-SoC협회 마케팅지원팀
조범식(02-2142-1056, bsjo@itsoc.or.kr)

IIC-China 2005 해외전시 지원사업

IT-SoC협회는 협회 회원사 10개 업체와 함께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IIC-China 2005에 참가했다. IT-SoC협회의 주관으로 독특한 부스 디자인의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한 이번 IIC-China 2005는 세계 각국에서 180여 개의 업체가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MCS로직이 중국의 푸티엔과 MP3P용 칩 공급 계약을 한 것을 비롯 많은 중국, 대만 업체들이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IT-SoC협회 황중범 사무총장은 "이번 전시회 참가는 중국 시장 진출이 미진했던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무한한 중국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참가 업체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앞으로 해외전시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회원사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에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 참가를 위해서 IT-SoC협회에서는 전담 테스크팀을 구성하고 홍보물 제작, 언론 매체에 대한 사전 홍보는 물론 부스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4개월여 간의 준비를 했으며 참가한 10개 업체의 부스 참가비 및 장치비 전액을 지원했다.

SoC 설계인력 정보열람 간담회 개최

IT-SoC협회와 IT-SoC사업단은 SoC 업체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 사업단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IT SoC 전공인증과정의 참여 인력을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IT-SoC협

회 황중범 사무총장, IT-SoC사업단 공진홍 단장을 비롯 11개 업체의 대표자 및 인사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SoC 설계인력의 수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IT SoC 전공인증과정 프로그램에 산업체의 참가를 적극 지원하고, IT-SoC 2005 전시회에서 Job Fair 등을 개최하여 업체와 설계인력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통신표준화사업 및

SoC 포럼 수행 협약 체결

IT-SoC협회는 4월 정통부와 2005년도 정보통신표준화사업 및 SoC 포럼 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보통신표준화사업은 SoC 개발에 필수적인 IP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유통 및 개발의 표준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SoC 포럼은 SoC 관련 산·학·연·관의 활발한 정보교류 및 토론을 통해 각 분야간 상호보완적 협력추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2004년부터 협회가 포럼 사무국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로 올해도 그 운영을 지속해 나가게 되었다. Ⓞ



- IT SoC 핵심 연구소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www.etri.re.kr



“노무현 대통령이 ETRI에 온 까닭”

- 세계 최고의 IT R&D 연구기관으로 우뚝 선 ETRI 치하 -
- 대통령, WiBro, DMB 차량시연, 최고기술에 연방 감탄 -

"여러분들 때문에 밖(외국)에 나가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31일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www.etri.re.kr, 원장 임주환)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며 연구원들을 격려하며 한 말이다. 이날 국내 최대의 연구기관인 ETRI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ETRI 이동통신연구단 200여명의 연구원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 IT 발전을 위해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WiBro와 DMB 연구개발에 성공한 연구원들의 노력에 감격 어린 목소리로 칭찬했다.

ETRI에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지난 90년 노태우 대통령 방문 이후 15년만의 일이다. 더구나 ETRI와 대덕연구단지가 거듭날 수 있는 대덕 R&D 특구의 비전선포식이 있던 날 노무현 대통령의 연구현장 방문이었기에 ETRI 임직원들은 물론 대덕연구단지 종사자들의 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남달랐다. ETRI는 지난 1976년 설립 이래 약 30여 년간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IT 연구기관이자 한국 과학기술 발전의 메카로 그 역할을 다했다. TDX, 4M DRAM, CDMA의 성공과 WiBro, DMB에 이르는 연구 성과들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ETRI 연구원들의 밤 낮 없는 연구결과의 산물이기도 하다.

* TDX : 1986년 독자개발, 1987년 1가구 1전화시대 실현에 기여, 획기

- 적인 통신기대 진입에 기여(1997년 TDX 1천만 회선 돌파에 기여)
- * 4M DRAM : 1988년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결정적인 기여, IT강국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제공, 범국가적인 공동 사업이었음
- * CDMA : 1996년 세계최초의 CDMA 상용화, IT강국의 초석이 되었으며 미국의 퀄컴사로부터 20%의 기술료를 받고 있음

1996년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CDMA의 경우, 6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시장창출 효과를 냈으며, ETRI가 세계적 IT R&D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 깜짝 놀란 WiBro, DMB의 경우에도 각각 13조원,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돼 'IT의 산실 ETRI'의 명성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 * CDMA : 시장창출 65조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출연기관 연구성과의 경제적 효과분석, 산업기술연구회, 2003.12.
- * WiBro : 시장창출 13조 ---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IT839전략 8대 서비스 마스터 플랜(2004)", MIC 보고서
- * DMB : 시장창출 10조 ---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IT839 전략 8대 서비스 마스터 플랜(2004)", MIC 보고서

이날 임주환 ETRI원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이뤄진 WiBro, DMB 시연행사를 통해 달리는 차 안에서 인터넷 접속과 TV시청을 즐기는 노대통령의 미소된 얼굴에서 2만불 코리아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흘렀다. ETRI를 통해 외국에 나가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말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강한 애착과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ETRI를 방문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참여 정부의 국정 목표이기도 한 국민소득 2만 달러 조기달성의 원천인 IT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으로 풀이되고 있다. 과기부총리, 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대덕연구단지를 찾은 노무현 대통령의 연구기관 방문은 이공계 기피현상을 불식시키는 간접적인 계기이기도 했다. IT 분야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ETRI에서 개발한 WiBro, DMB 시연차량에 탑승 후 우리나라 IT 분야가 이렇게 발전했다며 깜짝 놀랐다고 그 소감을 피력했다. Ⓜ

KIPA IT-SoC사업단

www.software.or.kr/itsoc

제1기 IT SoC 전공인증서 수여식 개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하 KIPA) IT-SoC사업단은 3월26일 IT SoC 아카데미에서 제1기 IT SoC 전공인증서 수여식을 갖고 123명의 석·박사급 설계전문인력을 배출하였다. 이는 2003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의 핵심으로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실무교육을 강화한 IT SoC 전공인증과정들 모두 통과한 SoC 설계전문인력의 첫 양성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일부 진학인원을 제외한 수료자는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엠텍비전 등 국내 SoC 유망기업에 취업함으로써 설계인력난에 고충을 겪고 있는



국내 SoC 기업의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SoC 기업 관계자 및 교수,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수여식에서는 인증서의 유효성과 사후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2005년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 운영 개시

KIPA IT-SoC사업단은 IT SoC 핵심설계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IT SoC 전공인증과정, IT SoC 실습프로젝트, IT SoC 교육기반구축 등 7개 부문에 대한 세부 과제를 공모하여 과제 선정을 일부 완료하였다.

△IT SoC 전공인증과정은 13개 대학이 추가되어 총 53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전공실습프로젝트는 총 112개 신청과제 중 총60개 과제, △설계실습프로젝트는 총 24개 신청과제 중 총 19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산학협력프로젝트는 4월 2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그리고 △IT SoC 아카데미 지역캠퍼스는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북, 광주·전남 지역의 7개 대학교가 선정되어 해당 지역을 총괄하게 되었고, △설계교육용 플랫폼은 5개 과제를 구축, 추진중에 있으며,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수시 접수하고 있다. 이로써 KIPA IT-SoC사업단은 SoC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핵심설계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T SoC 산업기반조성사업 수요조사 및 시제품 개발지원 신청 접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 IT-SoC사업단은 SoC 관련 산업체 및 대학의 R&D와 제품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3월 4일, 2005년 IT SoC 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서 수요조사 및 1차 IT SoC 시제품 개발지원 신청접수를 실시하였다.

▲ IT SoC 산업기반조성사업 수요조사_ '05년도 IT SoC 산업기반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지원환경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EDA 설계툴, IP, SoC 시제품 개발, SoC 시험, SoC 테스트베드 및 계측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oC 관련 135개 기업이 수요조사에 참여하였다. 특히 IP의 경우 Soft IP 와 함께 Hard IP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항목이 추가로 포함되었으며, SoC 시제품 개발에서도 맞춤형 IP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SoC 관련 산업체에 좀 더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1차 SoC 시제품 개발지원 신청 접수_ 정보통신기기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IT SoC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7일부터 4월7일까지 '05년 1차 SoC 시제품 개발지원 신청 접수를 실시, 13개사 13종이 신청 접수하였으며 4월 15일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을 심의 선정한다. 금

년도에는 맞춤형 IP 지원이 추가되어 SoC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IP비용의 일부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05년도에는 분기별(3월,6월,9월)로 시제품 개발지원 신청접수를 실시하며 개별제작을 우선 지원한다.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은 원스톱 파운드리 서비스 지원 및 IP 비용, 후반부설계(Back-end Design) 비용, 제작(Mask & Fab)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SoC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04년 IT SoC 시제품 개발지원에서는 개별제작 19종을 지원한 바 있다.

▲ IP기반 SoC설계기술 지원 확대_ SoC업체가 요구하는 상용 IP를 도입하여 공동활용토록 하는 IP 지원 프로그램은 '04년까지 Soft IP 위주로 지원하였고 '05년에는 국내 파운드리와 연계한 Hard IP까지 그 지원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년부터 ADC/DAC, PLL 등의 아날로그 회로와 USB PHY 등의 하드 IP를 국내 파운드리의 공정에 포팅하여 국내 SoC업체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단이 IP를 도입하여 공동활용 지원과는 별도로 개별업체가 SoC개발에 필요한 IP를 도입하는 경우 도입비용의 일부(50% 범위)를 지원한다. 맞춤형 IP 지원은 SoC시제품개발 지원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형태(지원금에 IP 사용 및 도입비용을 포함)와 SoC에 적용될 IP 비용만을 단독으로 지원하는 2가지 형태로 운영한다. KIPA IT-SoC사업단은 이러한 수요조사 및 시제품 개발지원을 통하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IT SoC 산업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고, SoC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점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반도체설계자산연구센터

OCP-IP와 협력-한국어 홈페이지 개설 (<http://www.ocpip.org>)

SIPAC은 Open Core Protocol International Partnership (OCP-IP)과 협력하여 OCP-IP 한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이에 따라 OCP-IP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던 국내 사용자들은 번역을 해야하는 불편함 없이 OCP-IP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OCP-IP는 상호 연결 가능한 가상 컴포넌트의 신속한 생성과 통합을 보장하기 위한 소켓 표준인 Open Core Protocol(OCP)을 추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폭넓은 시스템 레벨의 집적시 요구되는 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코어중심의 프로토콜을 오픈 라이선스(open license)방식으로 제공하며, 보다 쉬운 IP 코어 재사용, SoC 설계 기간 및 위험, 제조비용의 경감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개설된 한국어 홈페이지는 국내에서도 점차 OCP-IP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OCP-IP 활동의 주요 정보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4차 SIPAC IP 유통시스템 오픈

IP 유통 및 관리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2001년 12월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던 SIPAC의 IP 유통시스템은 현재 1,390여건의 IP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IP 카탈로그 서비스를 중심으로 IP 검증 및 평가시스템, IP 거래계약서 제공 및 중개, Wish IP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SIPAC은 IP 유통 시스템 사용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인 IP/SoC Expert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IP/SoC Expert 서비스란, IP/SoC 관련 업체 및 대학교 연구실 정보를 SIPAC DB에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국내외에 효율적으로 소개하고 홍보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등록한 업체 및 대학교 연구실은 소속기관의 사업내용 및 연구활동, 개발 IP 또는 제품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으며, IP/SoC 설계자 및 사용자들은 IP/SoC 관련 기업 및 연구실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SIPAC은 IP/SoC 관련 학회나 세미나 등의 행사 정보와 회원 뉴스등을 제공함으로써 IP 유통시스템 사용자들이 IP/SoC 분야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도록 하였다.

FARADAY Technology Co., SIPAC에 460 여건의 IP 등록

지난 2월 대만의 FARADAY Technology Co.가 460 여건의 IP를 SIPAC에 등록하였다. SIPAC IP 유통시스템에서 Seller로 활동 중인 FARADAY(<http://www.faraday-tech.com>)는 UMC에서 Spin-Off된 Design House로 IP 개발 및 기술 지원에서부터 시스템 제작, 패키지 그리고 테스트까지 IP 재사용을 통한 SoC 설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서비스하고 있다. 5월 현재 SIPAC IP 유통시스템에는 Faraday에서 등록한 IP를 포함하여 1,390 여건의 IP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IPAC 홈페이지(<http://www.sipac.org>)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지능형 SoC Robot War 2005

올해로 4회 대회를 맞이하는 SoC 로봇워는 5월 15일까지 참가팀 접수를 시작으로 올해 대회의 레이스를 시작한다. 지능형 SoC 로봇워는 2004년도와 같이, 참가팀을 대상으로 한 출전자격 TEST, 예선, 본선으로 진행되며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태권로봇(2족로봇)은 자격테스트를 거쳐 최종 8팀을 선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참가신청은 로봇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자격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2인 이상인 팀으로 SoC 로봇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대회 홈페이지 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참가팀 관리와 참가팀간의 정보공유를 위하여 로봇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되었다. 참가팀들은 대회 참가신청을 위해서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만 한다.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은 회원가입 유, 무와 참가신청 유, 무에 따라 각 게시판 및 자료실에 대한 권한이 달라지며 회원들 간에 서로 쪽지나 메일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도 이용할 수 있다.

참가신청 안내

- 참가신청 접수일정: 2005년 4월 1일 ~ 5월 15일
- 참가자격: 대학(원)생으로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
- 예선경기: 9월 (KAIST), 본선경기: 11월 (서울 COEX 전시관)
- 문의: Tel. 042-869-8929, Fax. 042-869-8930
- E-mail: socrobotwar@sipac.org
- Web-site: www.socrobotwar.com